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3일 서울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거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로 간다"

축구협,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재신임…성적 책임 질문에 "지켜봐주길"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

대한축구협회는 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유임을 공식 발표했다.

홍명보호는 이번 월드컵에서 1무2패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투지가 실종된 무기력한 경기력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허정무 부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이번 월드컵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책임론'은 이 작업이 끝난 뒤에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홍 감독이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을 잘 이끌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홍 감독의 유임은 확실히 못박았다. 분석은 '면밀하게' 하겠다면서도 홍 감독의 거취는 속전속결로 확정한 것이다. 허 부회장은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일본과 이란은 감독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탈리아는 축구협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성적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지만 협회는 결국 아무런 쇄신안도 내놓지 않았다. 홍 감독은 물론 협회 고위 인사 가운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적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이 4차례나 나왔다.

허 부회장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책임론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데)…"라며 얼버무렸다. 그러고는 "책임을 통감한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등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기자들이 '책임론'을 끈질기게 제기하자 허 부회장은 "홍 감독은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실패 원인을 연구하고 있다"고 못이기는 척 대답했다. 홍 감독이 홀로 했다는 '마음고생'이 협회가 치른 대가의 전부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

명예회복의 길 '첩첩산중'

K리그 후 곧바로 경기…경기력 저하·해외파 소집 어려움

역대 아시안컵서 우승 2번뿐…1988년 이후 최고 성적 3위

대한축구협회가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성적(1무2패)을 거두고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홍명보(45)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면죄부'를 발부했다.

허정무 축구협회 부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 감독의 유임을 발표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번 실패를 발판 삼아 내년 1월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다.

홍 감독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직후 축구협회에 사의를 표했지만 지난 2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홍 감독과 직접 만나 4시간에 걸친 면담을 통해 유임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은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이번 월드컵의 부진을 만회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표팀 사령탑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앞으로 이어지는 평가전 성적에 따라 또 다시 '자질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여기에 새로 대표팀을 꾸릴 때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불거진 '의리 논란'의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도 있다.

결국 홍 감독은 팬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성적과 뛰어난 경기력을 한꺼번에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고, 그 종착역이 아시안컵이다.

홍 감독의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그러나 내년 1월 아시안컵 이후 국제대회가 없어 사실상 임기의 마지막이 아시안컵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홍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명예회복을 노려야 하지만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에서 두 차례(1956년·1960년) 우승했지만 마지막 정상에 오른 게 무려 54년 전이다. 1988년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한 이후 지금까지 3위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월드컵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아시안컵에 소홀했던 게 부진한 성적의 원인이었다.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국제축구연맹(FIFA) 콘페더레이션스컵 출전권이 주어진다. 월드컵 1년 전에 열리는 콘페더레이션스컵은 각 대륙컵 우승팀들이 출전하는 만큼 대표팀의 실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자리다. 이 때문에 축구협회도 2000년대 들어 아시안컵에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일본과 중동 국가에 밀려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2011년 대회부터 1월로 대회 기간이 바뀌면서 대표팀으로서는 선수 선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월은 시즌을 마친 K리그 팀들이 전지훈련을 시작하는 때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바닥을 칠 시기다. 이미 홍 감독은 지난 1월 치러진 대표팀의 미국과 브라질 전지훈련에서 이런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다.

여기에 아시안컵이 FIFA에 등록된 대회여서 해외파 선수를 차출할 수 있지만 월드컵과 달리 대회 직전 부를 수밖에 없어 탄탄한 조직력을 꾸리기에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대표팀은 오는 9~11월 사이에 총 6차례의 A매치를 치를 수 있고, 이 가운데 3~4차례의 평가전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올해 A매치를 통해 대표팀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8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아시안컵은 대회 개막 2주 전에 대표팀을 소집할 수 있지만 월드컵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는 셈이다. /연합뉴스

아깝다 '10승'

류현진, 클리블랜드전 7이닝 2실점 호투… 타점·득점 불구 불펜이 승 날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잘 던지고 잘 쳤지만 시즌 10승 달성은 다시 미뤄야 했다.

류현진은 3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홈런 하나를 포함한 7안타를 내주고 2실점으로 막았다. 사사구 없이 삼진을 8개나 잡았다. 타석에서도 2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팀이 3-2로 앞선 7회말 타석 때 야시엘 푸이그와 교체됐지만 8회 마운드에 오른 브라이언 윌슨이 역전을 허용해 승리를 날렸다. 다저스는 4-5로 졌다.

류현진은 이날 101개의 공을 던졌고, 이 중 스트라이크는 70개였다. 최고 구속은 시속 93마일(약 150㎞).

류현진이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3위 클리블랜드를 정규시즌에 만나는 것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이다. 아메리칸리그팀과 인터리그 경기에 나선 것도 올 시즌에는 처음이다.

류현진은 주축 선수들이 대거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데다 수비에서 동료의 실책이 잇따라 고전했다. 다저스는 이날 부상에서 회복하지 않은 유격수 핸리 라미레스를 비롯해 1루수 애드리언 곤살레스, 우익수 야시엘 푸이그, 3루수 후안 우리베 등 주력 선수들을 대거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했다.

류현진은 1회 1사 후 아스드루발 카브레라에게 좌중간 2루타를 내준 뒤 카를로스 트리운펠의 실책으로 주자 1·3루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카를로스 산타나와 안 곰스를 삼진으로 잡아내 스스로 위기에서 헤쳐나왔다.

2회 1사2루에서 잡은 병살 기회에서는 트리운펠이 2루에서 선행주자를 아웃시킨 뒤 글러브에서 공을 빼다 떨어뜨려 한 타자를 더 상대해야 했다.

3회에는 카브레라를 3구 삼진으로 쫓아내는 등 이날 처음 삼자범퇴로 막았다.

류현진은 3회말 1사 후 타석에 들어서 우완 바우어를 상대로 시즌 다섯 번째 안타를 때렸다.

공·수 교대 후 류현진은 선제점을 빼앗겼다. 1사 후 곰스의 우전안타에 이어 라이언 레이번에게 시속 145㎞의 속구를 가운데로 던졌다가 좌월 2점 홈런을 얻어맞았다. 올 시즌 7번째 피홈런이다.

5회말 류현진이 해결사로 나섰다. 류현진은 2사 1루에서 바우어의 시속 150㎞짜리 빠른볼을 잡아당겨 좌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쳐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시즌 2호 타점. 류현진이 한 경기에서 2안타 이상 친 것은 올 시즌 처음이자 통산 두 번째다. 다저스는 이후 연속 볼넷과 앤드리 이시어의 2타점 중전안타로 3-2 역전에 성공했다. 류현진도 홈을 밟으며 시즌 네 번째 득점을 올렸다.

6회 류현진은 3루수 로하스의 실책으로 선두타자를 출루시켰지만 이후 세 타자 연속 범타 처리했다. 7회에도 삼진 하나를 곁들여 삼자범퇴. 그러나 8회 등판한 윌슨이 동점을 허용, 류현진의 시즌 10승은 수포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류현진